III 과제

1. 경영과제

○ 국내 보험회사는 장기 성과 제고를 위해 ESG 통합 전략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

-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은 특정 기업 혹은 사업을 배제하여 포트폴리오 선택의 폭을 좁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무적 성과를 하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ESG 통합 전략의 도입을 위한 검토가 필요함
- ESG 통합은 거버넌스와 투자 전략 두 가지 측면에서 도입이 가능한데, 국내 보험회사는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많이 진전되었기 때문에 투자 전략 측면에서 ESG 통합의 구축 방안 모색에 집중하여야 할 것임
  - 알리안츠의 ESG 평가 방식과 같이 ESG 평가기관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ESG 임계값을 설정하여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과의 혼합을 통한 ESG 통합 체계도 구축할 수 있을 것임

○ 위탁운용을 주로 활용하는 국내 보험회사는 해외 선진 사례를 참조하여 ESG 요소를 고려한 위탁운용사 평가·선정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

- 국내 보험회사가 ESG 투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탁운용을 내재화하여 개선 방안을 검토하거나 위탁운용사 선정 시 ESG 요소를 체계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
- 글로벌 사업망이 부족한 국내 보험회사는 특히 해외 ESG 투자에 있어서 심사·실사 프로세스를 직접 구축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, ESG 요소를 체계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운용사를 선정하는 단계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인 것으로 판단됨
- 국내 보험회사는 UN PRI(2016) 및 알리안츠, 취리히 등의 자산운용사 평가 단계를 참조하여 자체 평가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
  - 더 나아가 국내외 공적 연기금의 선진 사례를 참조하여 위탁운용사 선정 시에 운용사의 리서치 결과, 투자 사례, 투자 정책 및 프로세스, 운용 조직의 전문성, 책임투자지침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한 가점 체계 마련을 검토할 필요도 있음[16)]

○ 장기적인 안목에서 ESG 투자 관련 보험회사 내부 전문성 제고 방안 또한 검토되어야 할 것임

- 위탁운용사 선정 시 ESG 요소를 체계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도 전문성을 갖춘 내부 인력이 필수적임

---

16) 장영민(2022)

- 전문성을 단기간에 제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ESG 투자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축하고, 투자의사결정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등을 ESG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립해 나아가야 함

2. 정책과제

○ 정책당국은 공시제도를 개선하여 ESG 공시를 통해 투자자가 피투자 기업·사업의 ESG 데이터를 투명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

- 분류체계(Taxonomy) 등을 통한 표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ESG 개념은 본질적으로 정성적이고 주관적인 특성이 있으므로, 신뢰도 높고 비교 가능한 ESG 데이터의 확보가 ESG 투자의 관건임
- 보험회사를 비롯한 투자자가 피투자 기업·사업의 ESG 데이터를 투명하게 확보할 수 있다면, 그린워싱을 방지한 ESG 투자가 수월할 것이기 때문에 정책당국은 공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
  - 2025년부터 시행될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도 공시제도 개선 방향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
- ESG 공시를 통해 공개하는 핵심 ESG 지표를 표준화하여 산업별로 비교 가능성·투명성·일관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이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,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투자자, 기업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필요도 있음
  - 정책당국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(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; ISSB)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공시 지침을 국제 기준선(Global baseline)으로 준용하되 국내 사정에 맞게 지표들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[17]

○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당국은 민·관협력 투자 정책을 통해 인프라 투자처를 제공함으로써 보험회사의 ESG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음

- 우리나라는 탄소배출 정점으로부터 40% 감축까지 경과하는 시간이 주요국에 비해 빠르기 때문에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인프라 투자의 확대가 절실한 상황임
  - 정부는 2018년 대비 2030년 탄소배출 감축 목표인 NDC[18]를 기존 26%에서 40%로 상향하였고, 이에 따라 탄소배출 정점으로부터 40% 감축까지 경과하는 시간이 12년으로 이는 24년과 35년이 걸리는 미국·EU와 비교할 때 2~3배 빠른 수준임[19]

---

17) OECD(2022)

18) NDC(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)는 2050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중간 단계로서 국가별로 스스로 정하는 2030년까지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임

19) 최형식 외(2021)

- 정책당국은 탄소배출 감축 등을 위한 인프라 투자처를 제공할 수 있는 민·관협력 투자 정책을 제정하여 보험회사의 ESG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임
  - 보험회사는 ESG 투자의 제약 요인 중 하나로 '목표 수익률을 충족하는 투자처 확보'를 꼽고 있으므로 (〈그림 Ⅱ-6〉 참조), 정책적으로 하방 위험을 낮추어 위험조정 수익률을 높인 투자처를 제공하여 보험회사의 ESG 투자를 유인할 수 있음
  - 민·관협력 투자 정책으로 운영되는 기존 정책형 뉴딜펀드는 인프라 투자 비중이 10~30%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확대하여 인프라 투자처 제공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
  - 인프라 투자는 일반적으로 만기가 길고 안정적인 배당, 이자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 투자에 비해 보험회사가 ESG 투자를 집행하기에 적절한 자산군임